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행위융합, 중화행동, 사고억제 결합의 차이*

이 세 용

과주교육지원청Wee센터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강박사고 유형 간에 사고행위융합(Thought-Action Fusion: 이하 TAF), 중화행동, 그리고 사고억제 결합에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파두아 강박증상 질문지-위싱턴 주립대학 개정판(PI-WSUR), 사고행위융합 척도(TAFS-R), 침투사고 대처과정 질문지(CITQ), 그리고 사고억제 척도(TS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박사고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TAF의 세 요인인 도덕성TAF, 가능성TAF-타인, 그리고 가능성TAF-자기를 모두 더 많이 경험하였고, 사고억제의 세 요인인 침투적 사고, 성공적 억제, 억제시도 중 침투적 사고와 억제시도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반면에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과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TAF, 중화행동, 사고억제 결합의 차이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능성TAF를 더 높게 경험하였고,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도덕성TAF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중화행동에서는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저자생-고반응 집단)이 자생성 강박조건에서 회피적 중화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고자생-저반응 집단)은 그 다음으로 회피적 중화행동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은 나머지 조건에서 유의미한 중화행동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생성 강박조건에서 직면적 중화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반응성 강박조건에서는 회피와 직면적 중화행동을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고억제에서 침투적 사고는 강박사고 고집단(고자생-고반응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자생성 혹은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으면 각각의 낮은 집단보다 억제시도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성공적 억제는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억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생성 강박사고, 반응성 강박사고, 사고행위융합, 중화행동, 사고억제 결합

* 이 논문은 이세용(2013)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8년 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인혜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E-mail: inheyi@kangwon.ac.kr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이하 OCD)는 원치 않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일어나는 장애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5에서 제시하는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또는 심상이 침투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이나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강박행동은 손 씻기나 확인하기 등의 외현적인 반복적 행동과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의 심리 내적인 행위 등으로 강박사고로 나타나는 불안 혹은 괴로움을 감소시키거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반한다. 한국인의 강박장애 발병률은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2016년 평생 유병률 0.6%), 30세 이전 발병률이 82%로 젊은 시기에 발병하고 예후가 나쁘다는 점에서 한번 강박장애가 발병할 경우 이후의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반면, 강박장애는 그 심각성에 비해 연구가 별로 되지 않은 정신장애로 이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행동이론이 가진 강박장애의 원인론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1980년대 이후 강박장애의 원인을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결과로 보는 인지행동적 관점이 부상하였고, Salkovskis(1985, 1989)는 침투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지각을 강박장애의 원인적 요소로 제시하였다. Salkovskis와 Harrison(1984)은 정상인과 강박장애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침투사고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강박장애 환자들이 침투사고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평가를 내린다고 하였다. 즉, 강박장애 환자들은 침투사고의 발생과 내

용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침투사고가 내포한 위험요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로 침투사고를 해석한다. 그 결과 그에 따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해가 갈 수 있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된다. 이렇듯 한 개인이 정상적 침투사고에 대해 왜곡된 개인적 책임감을 지게 되면, 그 결과 불편감 및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고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중화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Rachman(1997, 1998)은 강박사고의 발생 원인을 침투사고에 대한 재난적 오해석의 결과로 보았는데, 이는 한 개인이 침투사고를 경험할 때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미처가거나, 혹은 나쁜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오해석을 뜻한다. 이것은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정신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결국 중화행동으로 이어져 침투사고에 대한 오류적 해석이 수정되지 못하고 강화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Salkovskis(1989)와 Rachman(1971)의 인지행동이론은 강박사고의 원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부여하였다.

Rachman(1993)은 침투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지각과 재난적 오해석의 개념을 연합하여 사고행위융합(Thought-action fusion: 이하 TAF)이라는 인지적 편향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고행위융합은 크게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으로 나뉘며, 먼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은 성적이거나 신성모독적인 것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행한 것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믿

음으로 정의된다.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믿음으로 정의되며, 자신과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과 타인과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사고행위융합은 위해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인데, 내게 심각한 병이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 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믿음의 경우이며, 타인에 대한 사고행위융합은 주변 사람에게 끔찍한 위해가 발생하게 되는 생각이 그들의 위해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믿음이다.

그동안 강박장애와 사고행위융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이 두 개념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Muris, Meesters, Rassin, Merckelbach, & Campbell, 2001; Rachman, Thordarson, Shafran, & Woody, 1995; Rassin, Merckelbach, Muris, & Spaan, 1999; Rassin, Muris, Schmidt, & Merckelbach, 2000). 그러나 사고행위융합의 세 하위요인과 강박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다소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간에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의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한 연구들이 있으며(Abramowitz, Whiteside, Lynam, & Kalsy, 2003; Rassin, Merckelbach, Muris, & Schmidt, 2001; Shafran, Thordarson, & Rachman, 1996), 반면 강박경향성과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의 요인에서만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Rassin, Diepstraten, Merckelbach, & Muris, 2001). 아울러 강박경향성과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발견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Shafran et al., 1996). 하지만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도덕성 사고행위융합 보다는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이 강박증상과 좀 더 일관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행위융합 이론과 같이 강박장애의 원인을 내현적 인지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이후, Lee와 Kwon(2003)은 Rachman(1997, 2002)에 의해 제안된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순수강박사고의 유형을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로 구분하여 각 강박사고가 가진 인지적 특징과 중화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McKay, Abramowitz와 Taylor(2008)의 연구도 순수강박사고로 인한 강박행동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으며, 두 유형의 침투사고의 속성이 다양한 강박장애의 증상들을 단순화 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한주(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자생성 강박사고(autogenous obsessions)는 침투사고를 유발하는 자극이나 단서가 잘 나타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식으로 침투되며, 사고내용의 자아이질적(ego-dystonic) 속성으로 강한 저항을 유발한다. 그 결과, 불편감이 증가하면서 침투사고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억압하려는 중화행동을 하게 된다. 내용은 주로 성적, 공격적, 신성 모독적 그리고 비도덕적인 생각, 이미지, 그리고 충동이 주를 이루며, 때로 침투사고에 대한 유발단서가 감지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 논리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간접적인 연상이나 상징을 통한 과정으로 침투사고가 유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반응성 강박사고(reactive obsessions)는 주로 외부자극으로 침투사고가 유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유발자극은 개인에게 불편감과 위협감을 발생시키지만 침투사고의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로 직면적 중화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오염이

나 평균에 대한 염려, 위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의심과 걱정 등 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적 생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생성 강박사고에 비해 더욱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와 사고행위융합은 비슷한 속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김정인, 2005; 정선미, 2002). 하지만 이한주, 신민섭, 김중술과 권준수(2002)는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가 침투적 사고를 왜곡되게 평가하고 대상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인 면을 공유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고행위융합의 인지적 특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또한 김정인(2005)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이 침투사고 내용의 이질성이 높고, 불수용적이며, 도덕적인 평가과정이라는 점에서 자생성 강박사고의 인지적 평가과정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정선미(2002)는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우며, 정서적인 괴로움과 죄책감을 유발하고 회피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자생성 강박사고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또한 Lee와 Kwon(2003)은 자생성 강박사고가 자아이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 혹은 도덕적 융합(moral fus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통제에 대해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은 침투사고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발생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상대적으로 인과적 책임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반응성 강박사고의 인지적 평가과정과 유사하며(김정인, 2005), 반응성 강박사고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거나 발생하게 하는 힘

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관련된다(Lee et al., 2003). 종합하면,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자생성 강박사고는 침투사고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사고를 재난적으로 오해석하는 경향을(Rachman, 1997), 그리고 가능성 사고행위융합과 반응성 강박사고는 침투사고로 인한 위해의 발생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Salkovskis, 1989). 따라서 사고행위융합의 개념은 두 순수강박사고의 하위유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중화행동의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박장애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강박사고는 빈도와 강도 그리고 불편감에 있어 정상적 침투사고보다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강박증상이 높은 개인들은 이러한 침투사고를 통제하려는 시도경향성이 높고, 특히 빈번히 사용하는 회피적 방법으로 사고억제를 시도한다. 그러나 사고억제 시도의 결과는 초기의 의도와는 반대로 침투사고를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게 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갖는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이러한 역설적 과정은 한 개인이 사고에 대한 억제를 시도할 때,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려는 소망이 표적사고에 대한 잠재적인 예민함을 촉발시키고, 표적사고에 대한 자동적인 탐지 경향이 증가하면서 목표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증가하게 만든다. 결국 목표했던 사고억제의 기대효과는 더욱 약화된다(Wegner, Erber, & Zankos, 1993; Wegner & Zankos, 1994). 그동안의 연구들은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사고억제능력의 결함이 증가함을 발견해왔다(Bannon, Gonsalvez, Croft, & Boyce, 2002; Penadés et al., 2007; Smári,

Birgisdóttir, & Brynjólfssdóttir, 1995; Tolin, Abramowitz, Przeworski, & Foa, 2002).

이용승과 원호택(1999, 2000)은 침투사고의 유형에 따라 통제방략이 상이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억제의 역설적인 효과에도 차이가 남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의 사고억제 능력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사고행위융합은 불쾌감을 증가시키며 사고억압과 같은 회피전략에 관여하게 한다(Shafra et al., 1996). 특히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의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자생성 강박사고는 침투사고 자체를 더욱 위협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며, 사고의 내용에 대한 강한 충동으로 사고통제의 욕구가 강하다(설순호, 2004; 이한주, 1999). 반면에,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의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반응성 강박사고는 침투사고로 인한 발생 가능한 위해에 강한 책임지각을 경험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직접적인 중화행동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김정인, 2005; 민병배, 2000). 이를 볼 때,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사고통제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Lee, Yost와 Telch(2009) 그리고 Lee와 Telch(2010)의 연구결과는 자생성 강박사고의 사고억제능력에서의 결함이 반응성 강박사고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이는 반응성 강박사고에 비해 자생성 강박사고가 가진 인지적 특징들이 사고억제의 결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편파인 사고행위융합이 침투사고가 강박적일수록 증가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해(Shafra et al., 1996),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증가하고 사고통제의 어려움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검증을 시

도하였다. 그리고 순수강박사고의 하위유형인 자생성 강박사고의 내용이 혐오적, 성적, 그리고 공격적이고 침투사고 자체를 더욱 중요하고 위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이한주, 1999),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의 특징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고억제와 같은 회피적 중화행동을 주로 시도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반응성 강박사고는 침투사고의 내용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결과를 통제하거나 예방하려 한다는 점에서(Lee et al., 2003),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의 속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직면적 중화행동을 주로 사용할 것을 가정하였다. 아울러 반응성 강박사고보다 침투사고의 촉발 자극이 모호하고 내용의 속성이 더욱 이질적이며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사고억제 능력의 결함이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구분되는 점으로, 기존의 연구가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를 구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강박장애의 인지적 모델인 사고행위융합의 특성과 최근의 강박장애의 하위유형 패러다임인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의 관련성을 탐색했다는 점이다. 이는 강박장애의 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둔다. 또 하나로 이전의 연구들이 자생성 강박사고에 따른 회피적 통제방략과 반응성 강박사고에 따른 직면적 통제방략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사고억제라는 회피방략을 기점으로 강박사고 유형 중 사고억제 결함이 더 큰 강박사고 유형을 변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강박사

고 하위유형의 증상에 대한 치료적 전략에서 차이를 두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강박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억제 결함의 정도를 확인하고 강박장애의 인지적 모델을 적용하여 검증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며, 본 연구의 시도가 인지적 관점에서 강박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강박장애가 평균적으로 20대 초반에 발병하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침투 사고 자체의 속성은 정상군과 임상군에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며, 대학생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강박성향이 집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되기에 강박사고 유형에 따른 개인차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강원도 소재의 K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51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 중에서 44개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1명(남자 247명; 여자 224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20.24세(SD=2.21)였고, 연령범위는 17세에서 29세까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두아 강박증상 질문지-워싱턴 주립대학 개정판(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을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강박성향집단의 구분은 설문지 평균 상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강박성향 고집단>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강박성향 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강박성향 고집단 237명(남자 130명; 여자 107명)의 PI-WSUR 점수 평균은 2.25(SD=0.39)였고, 저집단 234명(남자 117명; 여자 117명)의 평균은 1.49(SD=0.16)였다.

강박사고 유형의 구분은 PI-WSUR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자생성 강박사고 평균점수 상, 하위 각 50%와 반응성 강박사고 평균점수 상, 하위 각 50%에 포함되는 네 범주의 사람들을 조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먼저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고자생-저반응 집단)은 자생성 강박사고 상위 50%에 들면서 반응성 강박사고는 하위 50%에 드는 사람들(n=68)이고,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저자생-고반응 집단)은 반응성 강박사고 상위 50%에 들면서 자생성 강박사고는 하위 50%에 드는 사람들(n=74)이다. 그리고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고자생-고반응 집단)은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가 모두 상위 50%에 드는 사람들(n=158)로, 강박사고가 낮은 집단은 두 강박사고 모두 하위 50%에 드는 사람들(n=171)로 분류하였다.

측정 도구

파두아 강박증상 질문지-워싱턴 주립대학 개정판(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

Burns, Keortge, Formea와 Sternberger(1996)가 강박장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을 측정하는 3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순

호(2004)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한국판 PI-WSUR은 전체 39문항에 4요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1)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와 충동, (2) 확인 강박행동, (3) 오염 강박행동, (4) 옷 입기 강박행동. 4요인을 자생성-반응성 강박 증상으로 나누기 위해 2요인 구조로 재편하였을 때, 자생성 강박 증상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와 충동으로(총 14개 문항), 반응성 강박증상은 나머지 확인, 오염, 옷 입기 강박행동으로(총 25개 문항)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1과 .91이었다.

사고행위융합 척도(Thought-Action Fusion Scale-Revised: TAFS-R)

Shafran 등(1996)이 개발하였으며, TAFS-R은 사고와 행위 간에 부정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경향으로 유발되는 강박사고의 인지적 왜곡을 평가한다(Rassin et al., 1999).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며, 총 19문항의 구성으로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희(2000)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은 12문항으로 신성 모독적, 성적, 폭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으며 비도덕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은 자신과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과 타인과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으로 나뉘며,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는 자신에게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실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은 남에

게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생각이 실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덕성 사고행위융합,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 그리고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88, .89, .95였다.

침투사고 대처과정 질문지(Coping for Intrusive Thoughts Questionnaire: CITQ)

중화행동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민병배(2000)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CITQ는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각 부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하나의 침투사고를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서를 느끼며 어떤 대처를 하는지 묻는 36개의 문항들에 5점 척도 상에서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통제방략을 알아보기 위해 1부의 자생성 강박사고 10문항과 2부의 반응성 강박사고 10문항만을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통제방략 문항만 사용하였다. 통제방략 변인 중 회피방략으로 사고억제 3문항, 직면방략으로는 환경통제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피방략과 직면방략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73과 .87이었다.

사고억제 척도(Thought Suppression Inventory: TSI)

Rassin(2003)이 개발하였으며, 이선영(2011)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Rassin(2003)의 요인 구조를 사용하였다. TSI는 3요인으로 나뉘는데, 침입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경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침투적 사고 5문항, 원치 않는 생각을 억제하려는 시도경

향성을 평가하는 억제시도 5문항, 그리고 원치 않는 생각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성공적 억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는 침투적 사고, 억제시도, 성공적 억제에서 각각 .69, .70, .78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행위융합과 사고억제 결함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 그리고 강박사고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강박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행위융합과 중화행동 그리고 사고억제 결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자생성 강박사고는 침투적 사고, 반응성 강박사고, 가능성TAF-타인, 억제시도, 가능성 TAF-자기, 반응성 강박조건-직면, 자생성 강박 조건-직면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3, p<.01, r=.57, p<.01, r=.28, p<.01, r=.28, p<.01, r=.27, p<.01, r=.14, p<.05, r=.11, p<.01$. 다음으로 가능성 강박사고는 침투적 사고, 억제시도, 반응성 강박조건-직면, 자생성 강박조건-직면, 도덕성TAF, 가능성TAF-타인, 가능성TAF-자기, 반응성 강박조건-회피의 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48, p<.01, r=.36, p<.01, r=.26, p<.01, r=.18, p$

표 1.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생성 강박사고	1											
2. 반응성 강박사고	.57**	1										
3. 도덕성TAF	.07	.18**	1									
4. 가능성TAF-타인	.28**	.15**	.20*	1								
5. 가능성TAF-자기	.27**	.14**	.20**	.77**	1							
6. 자생성 강박조건-회피	.07	.09*	.36**	.09	.13**	1						
7. 자생성 강박조건-직면	.11*	.18**	.18**	.09*	.06	.35**	1					
8. 반응성 강박조건-회피	.06	.11*	.18**	.11*	.09*	.45**	.37**	1				
9. 반응성 강박조건-직면	.14**	.26**	.20**	.11*	.16*	.30**	.51**	.20**	1			
10. 침투적 사고	.63**	.48**	.13**	.26**	.31**	.15**	.14**	.13**	.19**	1		
11. 성공적 억제	-.04	-.01	.04	-.14**	-.14**	.04	.09	.08	.10*	-.10*	1	
12. 억제시도	.28**	.36**	.18**	.07	.09*	.25**	.26**	.27**	.25**	.40**	.28**	1

주. TAF = Thought-Action Fusion

*. $p<.05$ **. $p<.01$

<.01, $r=.18$, $p<.01$, $r=.15$, $p<.01$, $r=.14$, $p<.01$, $r=.11$, $p<.05$. 두 강박사고를 비교했을 때, 자생성 강박사고가 가능성TAF 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반응성 강박사고는 도덕성TAF 및 가능성TAF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침투적 사고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가 반응성 강박사고보다 더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는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행위융합의 3요인과 사고억제의 3요인 점수를 t-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행위융합의 관계에서는 강박성향 고집단이

강박성향 저집단보다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 그리고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69)=3.19$, $p<.01$, $t(456)=3.66$, $p<.01$, $t(458)=3.43$, $p<.01$. 다음으로,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억제 결함과의 관계에서, 성공적 억제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침투적 사고와 억제시도는 강박성향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1)=9.52$, $p<.01$, $t(461)=7.16$, $p<.01$.

표 2.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행위융합과 중화행동 및 사고억제 결함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변 인	전체, (N=471) M(SD)	강박성향 고집단, (n=237) M(SD)	강박성향 저집단, (n=234) M(SD)	t
PI-WSUR				
강박사고/충동	1.37 (0.40)	1.59 (0.44)	1.14 (0.15)	14.54**
확인 강박행동	2.39 (0.75)	2.94 (0.64)	1.85 (0.37)	22.38**
오염 강박행동	2.05 (0.67)	2.46 (0.66)	1.63 (0.34)	16.93**
옷입기 강박행동	1.57 (0.81)	1.92 (0.95)	1.22 (0.41)	10.30**
평 균	1.87 (0.48)	2.25 (0.39)	1.49 (0.16)	27.44**
TAFS-R				
도덕성TAF	1.47 (0.80)	1.58 (0.79)	1.35 (0.79)	3.19**
가능성TAF-타인	0.52 (0.83)	0.65 (0.89)	0.38 (0.74)	3.66**
가능성TAF-자기	0.74 (1.00)	0.89 (1.07)	0.58 (0.90)	3.43**
TSI				
침투적 사고	2.08 (0.65)	2.34 (0.67)	1.81 (0.51)	9.52**
성공적 억제	2.22 (0.72)	2.23 (0.71)	2.21 (0.74)	0.21
억제시도	2.61 (0.73)	2.84 (0.74)	2.38 (0.64)	7.16**

주. PI-WSUR =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TAFS-R = Thought-Action Fusion Scale-Revised, TSI = Thought Suppression Inventory.

** . $p<.01$

강박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행위융합과 중화 행동 및 사고억제 결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강박사고 고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강박사고와 사고행위융합 그리고 침투적 사고와 억제시도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두 강박사고를 비교했을 때,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에서는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의 평균이 더 높았고,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에서는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의 평균이 더 높았다. 중화행동에서는 전반적으로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평균이 좀 더 높았으며, 성공적 억제 요인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4는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행위융합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이다. 먼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에서는 반응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여,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을 더 많이

표 3. 강박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행위융합과 중화행동 및 사고억제 결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강박사고 유형			
	고자생-고반응 (강박사고 고집단)	고자생-저반응 (자생성 강박집단)	저자생-고반응 (반응성 강박집단)	저자생-저반응 (강박사고 저집단)
	(n=158), M(SD)	(n=68), M(SD)	(n=74), M(SD)	(n=171), M(SD)
PI-WSUR				
자생성 강박사고	1.75 (0.42)	1.48 (0.20)	1.12 (0.08)	1.08 (0.07)
반응성 강박사고	2.73 (0.51)	1.80 (0.18)	2.46 (0.35)	1.64 (0.21)
TAFS-R				
도덕성TAF	1.60 (0.76)	1.33 (0.80)	1.60 (0.84)	1.34 (0.78)
가능성TAF-타인	0.78 (0.07)	0.70 (0.94)	0.35 (0.64)	0.27 (0.62)
가능성TAF-자기	1.08 (1.10)	0.95 (1.18)	0.46 (0.85)	0.46 (0.75)
CITQ				
자생조건-회피	1.69 (0.91)	1.79 (0.87)	1.87 (0.95)	1.53 (0.88)
자생조건-직면	1.46 (0.98)	1.38 (0.97)	1.56 (0.94)	1.20 (0.98)
반응조건-회피	0.97 (0.84)	0.90 (0.83)	1.17 (0.90)	0.83 (0.79)
반응조건-직면	1.88 (1.17)	1.61 (1.06)	1.82 (1.03)	1.27 (1.04)
TSI				
침투적 사고	2.53 (0.68)	2.19 (0.54)	1.84 (0.47)	1.73 (0.46)
성공적 억제	2.20 (0.73)	2.08 (0.70)	2.37 (0.70)	2.23 (0.73)
억제시도	2.88 (0.74)	2.60 (0.60)	2.74 (0.74)	2.32 (0.64)

주. PI-WSUR =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TAFS-R = Thought-Action Fusion Scale-Revised, CITQ = Coping for Intrusive Thoughts Questionnaire, TSI = Thought Suppression Inventory.

표 4.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행위융합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도덕성TAF				
자생성고-저	0.00	1	0.00	0.00
반응성고-저	6.83	1	6.83	10.87**
자생성 x 반응성	0.00	1	0.00	0.01
오 차	293.43	467	0.63	
가능성TAF-타인				
자생성고-저	17.47	1	17.47	26.86**
반응성고-저	0.38	1	0.38	0.58
자생성 x 반응성	9.782E-5	1	9.782E-5	0.00
오 차	303.70	467	0.65	
가능성TAF-자기				
자생성고-저	29.34	1	29.34	31.40**
반응성고-저	0.27	1	0.27	0.29
자생성 X 반응성	0.44	1	0.44	0.47
오 차	436.34	467	0.93	

주. TAF = Thought-Action Fusion

**. $p < .01$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67)=10.87$, $p < .01$. 다음으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여,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능성 사고행위융합-타인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67)=26.86$, $p < .01$. 마지막으로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를 보면 자생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자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67)=31.40$, $p < .01$. 종합하면, 예상과 달리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가능성 사고행

위융합을 높게 경험하였고,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을 높게 경험하였다.

표 5는 강박사고 유형 간 중화행동방략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이다. 먼저 자생성 강박조건-회피방략에서 두 강박사고 간 상호작용 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1, 467)=5.97$, $p < .01$. 그림 1을 보면,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저자생-고반응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회피방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고자생-저반응)이 그다음으로 회피방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강박사고 저집단은 회피방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즉, 반응성 강박

표 5. 강박사고 유형 간 중화행동방략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자생조건-회피방략				
자생성고저	0.18	1	0.18	0.22
반응성고저	1.37	1	1.37	1.68
자생성 x 반응성	4.89	1	4.89	5.97*
오 차	383.01	467	0.82	
자생조건-직면방략				
자생성고저	0.23	1	0.231	0.24
반응성고저	5.08	1	5.08	5.33**
자생성 x 반응성	1.83	1	1.83	1.93
오 차	445.264	467	0.95	
반응조건-회피방략				
자생성고저	0.43	1	0.43	0.61
반응성고저	4.09	1	4.09	5.89*
자생성 x 반응성	1.94	1	1.94	2.79
오 차	324.46	467	0.70	
반응조건-직면방략				
자생성고저	4.36	1	4.36	3.68
반응성고저	17.51	1	17.51	14.77**
자생성 x 반응성	1.64	1	1.64	1.38
오 차	553.67	467	1.19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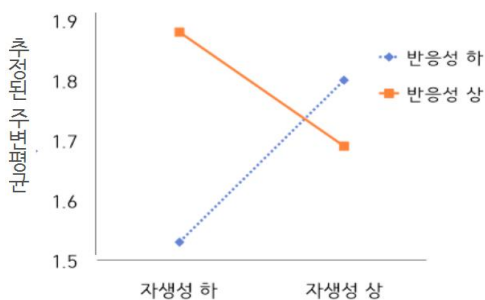


그림 1. 자생조건-회피방략에서 강박사고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

사고 집단(저자생-고반응 집단)이 자생성 강박 조건에서 회피방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생성 강박조건-직면방략에서는 반응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여,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생성 강박조건에서 직면방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67)=5.33, p <.05$. 아울러 반응성 강박조건-회피방략에서는 반응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반응성 강박조건에서 회피방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467)=5.89, p<.05$, 반응성 강박조건-직면방략에서도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직면방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67)=14.77, p<.01$. 종합하면, 예상과 달리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가 유발되는 조건 모두에서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직면과 회피적 방략을 모두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억제 결함요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이다. 먼저 침투적 사고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의 주효과와 자생성-반응성 강박사고 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467)=102.50, p<.01, F(1, 467)=16.31, p<.01, F(1, 467)=4.35, p<.05$. 그림 2에서 네 집단 중 강박사고 고집단(고자생-고반응)이 침투적 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침투적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강박사고 저 집단(저자생-저반응)은 침투적 사고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시도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의 주효과 $F(1, 467)=9.63, p<.01$ 와 반응성 강박사고의 주효과 $F(1, 467)=25.30, p<.01$ 가 유의미하여,

표 6.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억제 결함 변인들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침투적 사고				
자생성고저	32.14	1	32.14	102.50**
반응성고저	5.12	1	5.12	16.31**
자생성 x 반응성	1.36	1	1.36	4.35*
오 차	146.45	467	0.31	
억제시도				
자생성고저	4.64	1	4.64	9.63**
반응성고저	12.18	1	12.18	25.30**
자생성 x 반응성	0.48	1	0.48	1.00
오 차	224.86	467	0.48	
성공적 억제				
자생성고저	2.58	1	2.58	4.93*
반응성고저	1.51	1	1.51	2.89
자생성 x 반응성	0.00	1	0.00	0.01
오 차	244.24	467	0.52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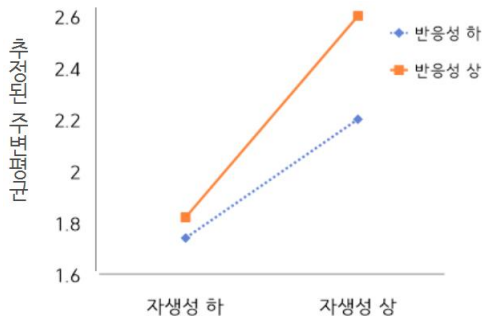


그림 2. 침투적 사고에 대한 자생성-반응성 강박 사고의 상호작용 효과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그리고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억제시도를 더 많이 하였다. 반면에 자생성-반응성 강박사고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억제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여 $F(1, 467)=4.93, p<.05$,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성공적인 사고억제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왜곡인 사고행위융합과 사고억제 능력의 결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강박사고를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와 같은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강박사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행위융합의 특징과, 그에 따른 중화행동 및 사고억제능력 결함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사고행위융합의

차이를 보면, 강박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가능성 사고행위융합 모두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nstein과 Menzies(2004)의 연구는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가 높은 강박성향 집단에서 사고행위융합의 특성이 증가한 것을 밝힌 바 있는데, 특히 파두아 강박증상 척도(The Padua Inventory: PI)가 강박증상들 중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사고경향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파두아 강박증상 하위척도들이 사고통제의 어려움 및 행동통제의 상실에 대한 걱정과 충동 등 정신작용의 통제 실패 요인을 타 강박증상 척도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마술적 사고와의 높은 상관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모즐리 강박 척도(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 MOCI)나 강박증상 척도(The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 OCI)와 같은 도구들도 마술적 사고와 중간 수준의 상관을 갖긴 하지만 주로 씻기, 확인, 배열, 수집 등의 중화행동 요인에 더욱 초점화 되어있어 사고행위융합과 같은 과학적인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경향과 관련된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사고경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파두아 강박 질문지-워싱턴 주립대학 개정판(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을 사용한 본 연구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논리적이지 못한 인지적인 왜곡특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강박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침투적 사고와 그에 따른 억제시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시도는 원치 않는 생각을 억제하려는 시도 경향성의

로(이선영, 2011), 강박성향이 높은 집단은 빈번한 침투사고 때문에 사고에 대한 억제시도 경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사고가 높은 개인에게 원치 않는 침투사고가 의식으로 떠오를 때 억제시도가 침투사고를 더욱 초점화시켜 결국 더욱 빈번한 침투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Posner & Snyder, 1975; Wegner & Wenzlaff, 1996).

한편 강박성향 고-저집단 간 침투사고의 성공적 억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성공적 억제 문항에 ‘약간 그렇다’로 체크하여 부정적 사고의 의도적인 통제에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Koster, Soetens, Braet과 Raedt(2008)의 연구는 침투사고에 대한 성공적 억제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우울이 개입될 경우 성공적인 억제 정도를 낮게 지각할 수 있음을 밝혔고, 이선영(2011)은 긍정적 정서와 자기유능감 등 자기개념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ilva 등(2018)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을 비롯한 불쾌한 정서가 사고억제의 어려움을 증가시켰으며, Thimm, Wang, Waterloo, Eisemann과 Halvorsen(2017)의 연구는 과거에 우울감을 경험했던 사람까지도 사고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회피전략에 몰입하여 사고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용승과 원호택(1999)의 주장처럼, 성공적 사고억제의 요인은 개인내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공적 억제 요인은 사고억제능력의 측정에서 다른 변인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고억제의 정도를 순수하게 측정하기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셋째,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행위융합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예상과 달리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이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을,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은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을 더욱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조현형 성격특성(schizotypal personality)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Lee, Coughle과 Telch(2005)의 연구는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이 조현형 성격특성 중 마술적 사고와 관련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즉,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 위협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은 확인 충동과 같은 특정 외현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러한 충동들이 좀 더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의 중화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상집단은 자신의 생각이 타인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가능성 사고행위융합이 높은 강박집단은 자기 생각이 주변사건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Rassin et al., 2001; Shafran et al., 1996). 반면에, 도덕성 사고행위융합은 상대적으로 비임상집단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엄격한 도덕률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조현형 성격특성과는 다소 관련성이 덜 하다고 하였다(Lee et al., 2005). 그리고 Lee와 Telch(2005)의 연구는 자생성 강박사고가 조현형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성적이고 공격적인 사고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및 충동 그리고 자아이질적인 속성들이 정신증적 사고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가능성 사고행위융합과 자생성 강박사고가 조현형 성격특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면이 반영되어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상반된 결과의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임상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강박적

불편감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결과들이 존재한다(Shafran & Rachman, 2004).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 우울과의 높은 관련성을 밝혀왔다(Abramowitz et al., 2003; Shafr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자생성 강박집단보다 반응성 강박집단에서 PI-WSUR의 평균점수가 약 1점 이상 높았는데, 우울 수준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반응성 강박집단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가정되기에 도덕성 사고행위융합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의 강박점수가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보다 낮다는 것은 집단 속성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즉,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에 비해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은 자생성 경계선 집단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구분의 모호성은 현재까지 자생성-반응성 사고유형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만일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자생성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면,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보이는 비논리적이고 혐오적인 사고들이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고내용이 사고행위융합과 같은 인지적 왜곡으로 확장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넷째, 강박사고 유형 간 중화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예상과는 달리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를 유발시키는 강박조건에서 회피와 직면적 중화행동을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두 강박사고유형 간 나타나는 중화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Mouldin, Jyrios, Doron과 Nedeljkovic(2007)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반응성 강박사고가 모든 영역의 강박충동과 관련됨을 발견하였으며, 반면에 김정인(2005)은 자생성 강박사고가 실제 사건유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에 회피적 중화행동과 직접적인 중화행동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지현, 이종환, 곽호완, 장문선과 구분훈(2016)의 연구는 자생성 강박사고보다 반응성 강박사고에서 더 큰 억제결함을 발견하였다. 관련하여 이한주 등(2002)은 두 강박사고 유형의 중화행동 패턴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강박사고에 내재된 사고행위융합의 속성이 강할 경우, 자생성 강박사고도 위해와 관련된 상승된 책임감으로 직면적 중화행동을 할 수 있고, 반응성 강박사고는 증상이 약할 경우 단순히 사고억제의 대상이 되거나, 발생가능한 부정적 결과의 실현가능성이 증가된다고 여길 경우에 그 생각에 대한 회피와 억제 시도 역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통제방략의 결정은 사고내용 외의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 할 수 있어 강박사고의 주제가 같더라도 수반되는 중화행동이 다를 수 있고, 대부분 강박성향은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명확한 유형의 분류가 쉽지 않다(Wilhelm & Steketee, 2006: 이미소, 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보다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강박점수가 더 높았는데,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사고의 강도가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보다 더 높았다고 가정하면, 가능성 강박사고와 관련된 책임감의 평가를 비롯하여 직면적 통제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이한주(1999)의 주장처럼 사고의 강도가 평가와 대처방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맥락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강박사고 유형 간 사고억제 결

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박사고 고집단(고자생-고반응 집단)에서 침투적 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는 강박사고가 높을수록 침투적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Bouvard, Fournet, Denis, Sixdenier, & Clark, 2017). 그리고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과 반응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은 각각의 낮은 집단보다 침투사고에 대한 억제시도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성공적 억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였다. 특히 자생성 강박집단의 강박점수가 낮았음에도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사고억제 능력에서의 결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는 이한주(1999)가 구분한 자생성 강박사고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자생성 강박사고가 미약하더라도 이러한 속성의 강박사고는 상당한 불쾌함이나 이질성으로 사고억제 시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박점수가 서로 비슷한 집단이었다면 이러한 억제결함에서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박사고 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강박증상이 불균형하였다. 강박성향이 높은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인 반면, 자생성 강박집단의 경우 강박점수가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럴 경우 강박사고의 수준과 강도에 따라 사고의 심각성이나 위협 수준의 평가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날 수 있고, 이후의 중화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개인차 변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정서 변인

의 통제 및 자생성 강박사고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유도할 만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생성 강박사고 문항에 솔직하게 체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성적이고 공격적이며 타인을 비하하는 내용에서 자신의 사고를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강박사고의 구분에서 자기 보고 외에 각 강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자극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중속 측정치로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 패러다임의 적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에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재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임상집단은 증상이 심각하기에 자생성 강박사고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이 강박사고 유형에서 다르게 분포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및 비임상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고억제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성공적 억제 요인이 순수한 사고억제의 능력을 반영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물론 성공적 억제 요인이 사고억제의 정도를 민감하게 측정하지만, 정서적 요인과 자기개념 등 개인 내 다른 변인과의 상관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방식의 사고억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지현 등(2016)의 연구에서 두 강박사고에 대한 사고억제 결함의 차이를 유도하기 위해 어휘 자극을 활용한 실험 패러다임을 시도하였으나, 유발자극의 속성이 모호한 자생성 강박사고의 억제결함을 유도하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개인 내 변인을 통제하고 자생성 강박사고의 억제결함을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측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과 자생성 강박사고의 관련성이 밝혀졌는데, 조현형 성격특성과의 높은 관련성이 예상된다(Lee, Cogle & Telch, 2005; Lee & Telch, 2005). Sobin 등(2000)의 연구가 조현형 성격특성이 강박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의 이질성이 강할수록 조현성 경향(schizotypy)이 증가함을 발견한 사실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조현성 경향은 조현병이 되기 쉬운 다소 경한 상태의 정신증 현상이라는 점을 볼 때(Claridge et al., 1996),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나타나는 조현성 경향은 이후에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박장애의 조현형 하위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과 치료를 위한 추후 연구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강박행동이 아닌 강박사고의 유형 간에 내재된 사고행위융합의 인지적 특징을 확인하고, 암묵적 중화행동인 사고억제의 결합 차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침투사고에 대한 왜곡된 평가로부터 중화행동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세분화하고 미묘한 기능상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따라서 순수 강박사고 유형 간에 존재하는 침투사고의 속성과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강박증상이 높을수록 사고행위융합의 특성과 침투사고 및 그에 대한 억제시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투사고의 불편감이 증가할 때 강박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직면과 회피방략을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자생성 강박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

고통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사고가 이후의 중화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박장애의 세분화에 한계를 지닌 행동적 접근 기반의 노출 및 반응방지법(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ERP)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강박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은 특히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보이는 인지적 왜곡의 교정과 현실적인 평가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강박사고 및 사고억제 결합의 완화를 돕는 데에 마음챙김(mindfulness) 훈련과 같은 수용적 대처기술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미애와 김정모(2009)의 연구는 마음챙김 기술이 부정적 사고의 억제시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지 등을 판단 없이 그대로 관찰하는 주의집중법과 같은 기술은 강박사고가 특별하지 않은 정신적 사건일 뿐이라는 점을 경험으로 이해하여 개인이 강박사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정인 (2005). 사고행동융합(Thought-Action Fusion)과 통제방략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이종환,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6). 강박성향군의 강박사고 위협자극에 대한 억제기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07-128.
- 민병배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 삼성서울병원.
- 설순호 (2004). 걱정과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통제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소 (2014).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대처방략의 차별적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영 (2011). 한국판 사고억제 척도(Thought Suppression Inventory: TSI)의 타당화 연구-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4), 889-906
- 이순희 (2000). 도덕적, 인과적 책임감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승, 원호택 (1999). 사고 억제(Thought Suppression)와 통제 방략에서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37-58.
- 이용승, 원호택 (2000). 통제 방략의 차이에 따른 침투사고 통제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681-696.
- 이한주 (1999).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한주, 신민섭, 김중술, 권준수 (200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임상집단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57-74.
- 전미애, 김정모 (2009).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대학생의 사고억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795-813.
- 정선미 (2002). 걱정 및 사고-행동 융합과 두 가지 유형의 강박사고와의 관계: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ramowitz, J. S., Whiteside, S., Lynam, D., & Kalsy, S. (2003). Is thought-action fusion specific to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069-107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Washington, DC: Auther.
- Bannon, S., Gonsalvez, C. J., Croft., R. J., & Boyce, P. M. (2002). Response inhibition deficit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10(2), 165-174.
- Bouvard, M., Fournet, N., Denis, A., Sixdenier, A., & Clark, D. (2017). Intrusive thoughts in patients with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non-clinical participants: a comparison using the International Intrusive Thought Interview Schedule.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6(4), 287-299.
- Burns, G. L., Keortge, S. G., Formea, G. M., & Sternberger, L. G. (1996).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s between worry, obsessions, and compul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2), 163-173.
- Claridge, G., McCreery, C., Mason, O., Bentall, R., Boyle, G., Slade, P., & Popplewell, D. (1996). The factor structure of schizotypal traits: A large replication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103-115.
- Einstein, D. A., & Menzies, R. G. (2004). The presence of magical thinking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 Therapy*, 42(5), 539-550.
- Koster, E. H. W., Soetens, B., Braet, C., & Raedt, R. E. (2008). How to control a white bear? Individual differences involved in self-perceived and actual thought-suppression ability. *Cognition and Emotion*, 22(6), 1068-1080.
- Lee, H. J., & Kwon, S. M. (2003). Two different types of obsession: autogenous obsessions and reactive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 11-29.
- Lee, H. J., & Telch, M. J. (2005). Autogenous/reactive obsess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CD symptoms and schizotypal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7), 793-805.
- Lee, H. J., & Telch, M. J. (2010). Differences in latent inhibition as a function of the autogenous-reactive OCD subtyp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7), 571-579.
- Lee, H. J., Cogle, J. R., & Telch, M. J. (2005). Thought-action fusion and its relationship to schizotypy and OCD sympto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 29-41.
- Lee, H. J., Yost, B. P., & Telch, M. J. (2009). Differential performance on the go/no-go task as a function of the autogenous-reactive taxonomy of obsessions: Finding from a non-treatment seeking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4), 294-300.
- Mckay, D., Abramowitz, J. S., & Taylor, S. (2008). Conceptualizing subtype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Abramowitz, J. S., Mckay, D., & Taylor, S (Ed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types and spectrum conditions* (pp. 127-138). New York: Elsevier.
- Mouldin, R., Jyrios, M., Doron, G., & Nedeljkovic, M. (2017). Autogenous and reactive obsession: Further evidence for a two-factor model of obsessio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5), 677-690.
- Muris, P., Meesters, C., Rassin, E., Merckelbach, H., & Campbell, J. (2001). Thought-action fusion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s in normal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7), 843-852.
- Penadés, R., Catalán, R., Rubia, K., Andrés, S., Salamero, M., & Gastó, C. (2007). Impaired response inhibition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22(6), 404-410.
- Posner, M. I., & Snyder, C. R. R. (1975). 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 In Solso, R. L (Ed.),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gnition: The Loyola symposium* (pp. 55-85). Hillsdale, NJ: Erlbaum.
- Rassin, E. (2003). The white Bear Suppression Inventory(WBSI) focuses on failing suppression attemp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4), 285-298.
- Rassin, E., Diepstraten, P., Merckelbach, H., & Muris, P. (2001).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7), 757-764.
- Rassin, E., Merckelbach, H., Muris, P., & Schmidt, H. (2001). The thought-action fusion scale: Further evidence for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5), 537-544.
- Rassin, E., Merckelbach, H., Muris, P., & Spaan, V. (1999). Thought-action fusion as a caus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rusions.

-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3), 231-237.
- Rassin, E., Muris, P., Schmidt, H., & Merckelbach, H. (2000). Relationships between thought-action fusion, thought suppression,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9), 889-897.
- Rachman, S. (1971). Obsessional rumin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3), 225-238.
- Rachman, S. (1993). Obsessions, responsibility, and gui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2), 149-154.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9), 793-802.
-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385-401.
- Rachman, S. (2002). A cognitive theory of compulsive checking.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6), 625-639.
- Rachman, S., Thordarson, D. S., Shafran, R., & Woody, S. R. (1995). Perceived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significa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7), 779-784.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5), 571-583.
- Salkovskis, P. M. (1989).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6), 677-682.
- Salkovskis, P. M., & Harrison, J. (1984).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A replicat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2(5), 549-552.
- Shafran, R., & Rachman, S. (2004). Thought-action fusion: a review.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5(2), 87-107.
- Shafran, R., Thordarson, D. S., & Rachman, S. (1996). Thought-Action Fusion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5), 379-391.
- Silva, S., Janeiro, L., Brás, M., Carmo, C., Martins, A. T., & Jiménez-Ros A. (2018). Paradoxical Effects of Worrisome Thoughts Suppression: the Influence of Depressive Mood. *Current Psychology*, 37(1), 98-106.
- Smári, J., Birgisdóttir, A. B., & Brynjólfssdóttir, B. (1995).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suppression of personally relevant unwanted though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5), 621-625.
- Sobin, C., Blundell, M. L., Weiller, F., Gavigan, C., Haiman, C., & Karayiorgou, M. (2000). Evidence of a schizotypy subtype in OCD.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4(1), 15-24.
- Thimm, J. C., Wang, C., Waterloo, K., Eisemann, M., & Halvorsen, M. (2017). Coping, thought sup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in currently depressed, previously depressed, and never depressed individuals. *Clinical Psychology Psychotherapy*, 25(3), 401-407.
- Tolin, D. F., Abramowitz, J. S., Przeworski, A., & Foa, E. B. (2002). Thought suppres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11), 1255-1274.
- Wegner, D. M., Erber, R., & Zanakos, S. (1993). Ironic processes in the mental control of mood and mood-related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 1093-1104.
- Wegner, D. M., & Wenzlaff, R. M. (1996). Mental control. In Higgins, E. T. & Kruglanski, A. W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462-492). New York: Guilford Press.
- Wegner, D. M., & Zanakos, S. (1994). Chronic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62(4), 615-640.
- Wegner, D. M., Schneider, D. J., Carter, S. III., & White T. L. (1987). Paradoxical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5-13.
- 원고접수일 : 2019. 04. 0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5. 23.
게재결정일 : 2019. 05. 23.

Thought-Action Fusion, Neutralizing Behavior, and Defects of Thought Suppression: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Se-Yong Lee

Wee Center, Paju Office of Education

In-Hyae Yi

Dep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firm the differences in thought-action fusion(TAF), neutralizing actions and deficiency of thought suppression among the types of obsession. To this end,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PI-WSUR), Thought-Action Fusion Scale-Revised(TAFS-R), Copying for Intrusive Thoughts Questionnaire(CITQ) and Thought Suppression Inventory(TSI) were conducted with 471 college students,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groups of high obsession experienced more of morality TAF, likelihood-other TAF and likelihood-self TAF, which are the three elements of TAF, than the groups of low obsession. They also experienced more of intrusive thoughts and attempted thought suppression among the three elements of thought suppression, which are intrusive thoughts, successful suppression and attempted thought suppression. When autogenous obsession groups and reactive obsession groups were divided, the results different than expected were obtained in the differences in TAF, neutralizing actions and deficiency of thought suppression. In detail, the groups with high autogenous obsession experienced more of likelihood TAF than the groups with low autogenous obsession. The groups with high reactive obsession experienced more of morality TAF than the groups with low reactive obsession. In regards to neutralizing actions, reactive obsession groups(low autogenous-high reactive groups) used avoidant neutralizing actions the most when it came to autogenous obsessive conditions, and autogenous obsession groups(high autogenous-low reactive groups) came after the reactive obsession groups when using avoidant neutralizing actions. The groups with high autogenous obsessio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in the rest of the conditions. The groups with high reactive obsession used more of direct neutralizing actions than the groups with low reactive obsession when it came to autogenous obsessive conditions. With regards to reactive obsessive conditions, they more used both avoidant and direct neutralizing actions. Lastly, intrusive thoughts in thought suppression occurred the most in the groups of high obsession(high autogenous-high reactive groups). If groups had high autogenous obsession or high reactive obsession, they experienced more of attempted thought suppression than the lower groups. When it came to successful suppression, the groups with high autogenous obsession experienced more difficulties in suppression compared to the groups with low autogenous obs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nings and suggestions that the study provide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utogenous obsession, reactive obsession, thought-action fusion, neutralizing actions, deficiency in thought suppression